

# ‘갑인자’ 인쇄술 서양전파 가능성 높다

〈지난 호에 이어〉

한국에서는 독일보다 약 200년이나 앞서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 인쇄술의 시대를 열었으나 현재까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은 독자적 발명이라는 것이 세계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양자의 영향 관계를 알려주는 물증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중심적 사고에 젖은 서구학자들의 주장이 그대로 세계 학계로 확산돼 나갔고 한국의 수많은 학자들마저 아무런 검증 과정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한다.

과연 구텐베르크는 발명가인가? 우리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서양으로 전파되어 갔을 가능성은 없는가? 있다면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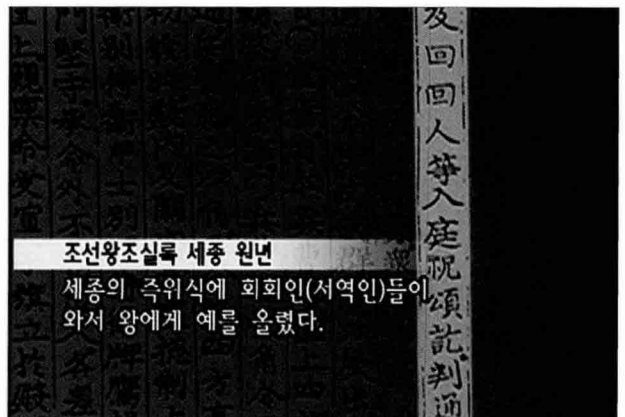
청주MBC 남윤성 PD는 지난 1995년 '직지' 다큐멘터리를 시작으로 2000년에는 '금속활자 그 위대한 발명' 3부작,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세상을 바꾼 금속활자, 그 원류를 찾아서' 2부작(▷제1부:구텐베르크는 발명가인가? ▷제2부:활자로드는 없는가?) 등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족문화유산인 금속활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연속 제작해 왔다. 그의 최근 작품인 '세상을 바꾼 금속활자...'는 우리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유럽으로 건너가 구텐베르크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탐사한 다큐멘터리로 지난 2월 10일 방송위원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을 수상하기도 했다. 남윤성 PD의 프로그램 제작기를 두 번에 걸쳐 실는다.〈편집자주〉

어느 정도인가?

안타깝게도 이 분야에 대한 국내에서의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비록 극소수이긴 하지만 몇 명의 유럽학자들이 우리 금속활자 인쇄술의 서양 전파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 왔음을 우리는

취재 도중 알게 되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환호에 가까운 반가움이었다.

지난 1997년 타계한 독일의 세계적 역사학자 카프르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유럽인들은 종이를 자신들의 발명



품인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유럽의 종이와 중국의 제지술에서 기원했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 역시 유럽의 자체 발명품이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얼마든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1925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카터 교수가 세계 최초로 한국의 활자 인쇄술의 서양 전파 가능성을 제기했고, 1970년대 영국의 저명한 동양사학자 허드슨은 "유럽의 학자들이 구텐베르크를 독자적 발명가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발명되었는가를 그들 스스로 명백히 입증해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 역시 직접적인 물증 제시는 못하고 있었다.

물증이 없다고 구텐베르크를 '발명가'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으면 무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재판관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기본 논리이다. 그러나 역사 기술에 있어 물증이 없을 경우 정확 증거가 역사 해석이나 기술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된다. 따라서 비록 단정은 어렵다 해도 추정적 형식으로 수많은

역사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는 동서양 모두에 해당된다.

그러나 유독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에서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학자들이 매우 관대한, 아니 무비판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에게 '발명가의 월계관'을 씌어 주는데 망설이지 않는다.

과연 구텐베르크는 발명가인가? 우리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구텐베르크에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없는가? 우리의 인쇄술이 유럽에 전파되었다면 과연 어떤 길로 어떻게 넘어갔을까? 이 문제에 대해 답을 얻기 위해서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진행과 함께 과연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인쇄술에 도전하기 전, 한반도와 유럽과의 교류 관계는 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집중 탐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 동서 교류의 대동맥 실크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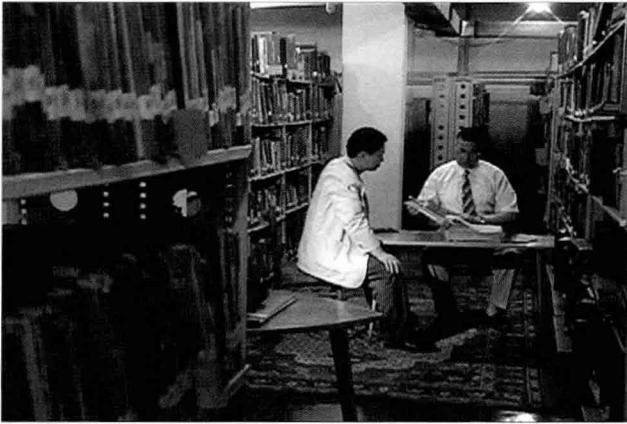
지금부터 최소한 2000년 그 이전부터 사람들은 사막을 지나고, 험준한 산맥을 넘어 동서양을 이었다. 로마의 귀족들이 가장 갖고 싶어했다는 중국의 비단을 로마에 가져가기 위해 장장 9000km의 길을 이어야 했다. 중국의 비단이 넘어갔다 하여 붙여진 이름 실크

로드(Silk Road)!

그러나 사실 이 길은 로마제국에 비단을 가져가기 700년 전에 마케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본격적인 동방 진출을 나설 때 지났던 길이었다. 길은 아마 알렉산더 대왕 이전에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한다. 이 길을 따라 기독교와 이슬람교, 불교가 한국에까지 전해져 왔고, 723년 신라의 고승 혜초는 인도 여행을 다녀와 유명한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수많은 상인과 순례자, 모험가, 그리고 병사들이 저마다의 목적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 길을 지났고,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동서양간에 엄청난 문명의 교류가 이어졌다. 중국의 종이와 목판인쇄술이 바로 실크로드를 따라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금속활자 인쇄술 역시 전해지지 않았을까?

#### 강력한 복병, 중국 활자 인쇄술의 서양 전파 주장

유럽 최초로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인쇄술을 세상에 펼쳐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다. 첫째는 금속활자를 주조해 내는 기술, 이는 유럽에서 역시 오랫동안 축적돼온 금속 주물 기술이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둘째는 유성 잉크의 개발, 이 문제



는 중세기 크게 발달했던 유화(油畵)의 덕에 쉽게 해결 할 수 있었으리라. 셋째는 중국의 제지술이 1290년대 유럽에 전해진 후 15세기 전후에는 유럽 전반에 확대 보급돼 있었다는 점이다.

중국 제지술의 서양 전파, 바로 이점에 착안해 지난 2000년 사금파와 야수리라는 두 중국학자는 『중국 활자 인쇄술의 발명과 초기전파』라는 책에서 중국의 활자인쇄술이 실크로드를 따라 서양에 전파된 것임에 분명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두 학자의 공통된 주장은 “13세기 초기에 유라시아 거의 전대륙에 걸쳐 몽골대제국이 형성되었고, 바로 이 시기는 동서교류의 최 전성기였다. 바로 이 시기에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의 목판 인쇄술은 물론 활자 인쇄술까지 서양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세계 최초로 활자 인쇄술이 시도된 나라는 중국이었다. 1041년경 중국 북송 시대에 평민 신분인 필승이란 사람이 교니(膠泥)라는 흙에 글자를 새긴 후 불에 구워 활자를 만들었다. 흙을 재료로 하여 부서지기 쉬운 한계가 있는데다 활자를 고정할 때 송진을 사용했던 까닭에 활자의 재사용이 어려워 결국 실패하고 만다.

그리고 1200년을 전후하여 중국의 서북방에 위치해 있던 서하(西夏)라는 소수민족국가에서 목활자 인쇄를 했다. 이 목활자 실물은 전해오지 않으나 인쇄물은 일부 남아 중국과 러시아에서 각각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둔황(敦煌)이란

곳에서도 목활자 인쇄가 있었다고 한다. 둔황은 중국쪽 실크로드의 요충지로 당시에는 서하의 지배 하에 있었다. 둔황 목활자 실물이 현재 프랑스 기메 박물관에 남아 있다. 중국 학자의 주장의 핵심은 서하 목활자, 특히 둔황의 목활자 인쇄 기술이 몽골대제국 시기 실크로드를 따라 유럽으로 향해 건너갔다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중국 학자들 말대로 중국의 목활자 인쇄술이 서양으로 전파되었는가? 물론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중국학자들의 주장을 꼼꼼히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곳곳에 있다.

우선 몽골대제국 시기에 중국의 목활자 인쇄술이 유럽으로 건너갔다면 당연히 몽골대제국 시기(13세기초~1368년)에 유럽에 활자 인쇄술이 나타났어야 했다. 그러나 유럽에 활자 인쇄술이 나타난 것은 1455년(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 인쇄)이었다.

왜 몽골대제국 붕괴 이후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다음 유럽에 활자인쇄술이 등장한 것일까? 바로 이 점 때문에 서구의 학자들은 중국 전파설을 부인한다. 또한 중국(정확히 서하)의 목활자 인쇄술은 1226년 징기스칸의 몽골군대에 멸망하며 활자 인쇄술 역시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 서하가 몽골에 복속된 후 목활자로 인쇄했다는 기록도 실물도 전해오지 않는다. 당시 몽골대제국은 유라시아 일대에 걸쳐 형성된 역사상 유례없는 대제국이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동서교류의 최 전성기라고 학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 몽골대제국의 본산이었던 원나라는 물론 제후국 어디에서도 목활자 인쇄를 했다는 기록도 실물도 없다. 따라서 보다 정확히 말하면 서하의 목활자 인쇄술과 구텐베르크의 인쇄술과는 200년 이상의 시차가 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다. 현재 중국학자들 주장의 중요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돈황은 실크로드의 핵심 요충지였기 때문에 바로 이 돈황의 목활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서진을 계속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취재팀이 프랑스 현지 박물관에서 직접 확인한 돈황 목활자는 과연 이것이 그 당시의 목활자인지의 여부도 고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목활자 표면에 먹이 거의 묻어 있지 않아 설사 그 당시의 활자라 치더라도 사용 여부에 강력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보다 정확한 연구가 새로이 진행돼야 한다. 따라서 중국 목활자 인쇄술의 서양전파 설은 언뜻 보면 일리가 있으나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면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그렇다면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술의 서양 전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 한국 금속활자 인쇄술의 서양전파 가능성 진단

현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인쇄 실물은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한 '직지'이다. 구텐베르크 보다 약

78년 앞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1234~1241년 사이 '상정예문' 50권 28부를 주자(鑄字) 즉 금속활자로 인쇄하여 정부 각 부서에 배포하였다는 기록이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나온다. 구텐베르크 보다 무려 200년 이상 빠른 것이다. '상정예문'을 인쇄한 시기는 몽골의 침입을 받아 수도를 강화도로 천도해 있던 시기이다. 강화도 천도시 고려 조정은 개성에서 이미 사용하던 금속활자를 천도하면서 함께 가져갔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 고려시대의 우리 금속활자 인쇄술이 서양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은 어떠한가? 고려는 결국 몽골에 항복하고 몽골의 지배하에 들어서고 몽골대제국에 편입되면서 바로 이 시기에 고려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동서교역로를 따라 서진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몽골대제국 체제에 편입된 고려에서 이후 금속활자 인쇄가 얼마나 활발하게 계속 진행되었는가 대해서 천혜봉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몽골침입 후 고려의 교육과 학문은 크게 위축되어 금속활자 인쇄는 마비 내지는 중단 상태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몽골 지배하의 고려의 상황도 안 좋았지만 설사 활발히 진행되어 실크로드의 최 전성기였던 몽골대제국 시기에 고려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실크로드를 따라 서양으로 넘어갔다면 유럽에서는 왜 몽골대제국 붕괴 후 100년이 지나 금속활자 인쇄술이 나타났을까 하는 의문이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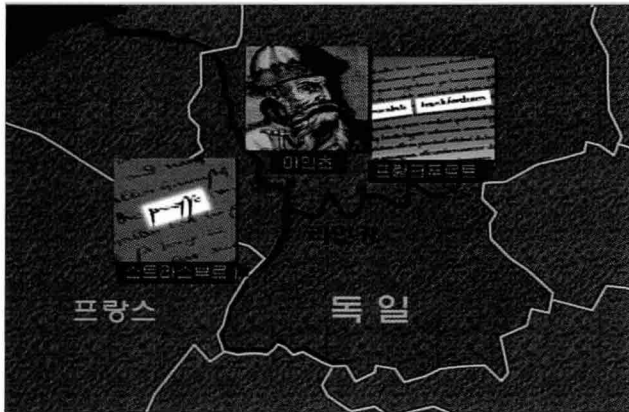
든다. 그렇다면 우리의 금속활자 인쇄술의 전파 가능성 역시 희박한 것일까?

별집서 추출한 밀랍 서양 양초와 비슷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이 건국한 조선은 3대왕인 태종이 등극하고 3년째를 맞으며 이른바 금속활자 인쇄 전담 국영인쇄소라고 할 수 있는 '주자소(鑄字所)'를 만들어 수많은 책의 간행에 돌입한다. 유교를 국가 통치이념으로 세우고 과거시험을 통해 신진사대부를 양성해 국정을 끌여가기 위한 태종의 국가 경영 전략 차원으로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된다.

이때 만들어진 금속활자가 바로 '계미자(癸未字)'이다. 태종 3년, 서기 1403년의 일이다. 태종에 이어 세종이 즉위하고 세종대왕은 즉위 2년(1420년), 그리고 즉위 16년(1434년) 두 차례에 걸쳐 금속활자를 다시 만든다. '경자자(庚子字)'와 '갑인자(甲寅字)'가 그것이다. 경자자까지 금속활자를 판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밀랍이 사용되어 왔다.

밀랍은 별집에서 추출해낸 것으로 서양의 양초와 비슷한 물질이다. 용융점이 낮고 상온에서 고체 형태를 유지하기에 금속활자의 조판에 있어 보조재료로 오래도록 사용돼온 것이다. 그러나 힘을 가하면 형태가 변하는 약점이 있다. 세종의 각별한 관심과 주문 속에 탄생한 갑인자는 금속활자 조판 시에 거의 보조재료의 사용 없이 오직 활자로만 조립하여 인쇄하는 단계로 도약한





다. 이른바 완전조립식 인쇄라는 역사상 최고의 기술 단계에 오른다. 당대는 물론 조선 역사상 최고의 과학기술자로 평가받는 이천과 장영실이 투입된 결과였다.

게미자에서 갑인자에 이르며 발전을 거듭하던 바로 그 시기, 유라시아 대륙은 새로운 판으로 짜여져 있었다. 한족은 몽골대제국의 본산이었던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명을 세웠고, 중앙아시아에서 유럽 지중해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몽골계통의 티무르가 차지하고 또다른 제국으로 키워가고 있었다. 바로 티무르 제국이었다. 조선 3대 태종이 게미자를 만들어 금속활자 인쇄를 본격 시행하던 1403년, 스페인 국왕은 플라비호를 티무르에게 파견하였고, 사신 플라비호는 3년간 티무르 제국의 수도 사마르칸트(현재 우즈베키스탄령)에 머물다 귀국한 {티무르시대 사마르칸트 여행기}를 역사에 남겼다. 당시 사마르칸트는 동서교역의 최대 중심지였다. 이 책에는 “사통팔달의 도시 사마르칸트에는 중국 사신, 상인이 왕래했고, 러시아에서도 많은 상인이 왔다. 그리고 시베리아 동부지역에서도 사신을 보내 왔다.”고 기록돼 있다.

동부 시베리아의 사신은 한반도 북부 일대에 살아오던 여진족의 사신으로 추정한다. 이 여진족의 사신은 분명 몽골 초원을 지난 사마르칸트로 갔을 것이다.(초원로) 그리고 중국의 상인과 사

신들은 전통적인 실크로드를 따라 사마르칸트에 갔을 것이다.(비단길) 조선은 여진과 중국 모두와 엄청난 교류를 전개했다.

조선에 복속 당한 여진은 수시로 토산품을 바치러 서울에 왔고, 조선의 사신은 조공을 위해 수시로 중국의 수도였던 남경과 북경을 찾았다. 3국의 수도에서 최상층부와의 교류시에 당대 최고의 신기술이었던 금속활자 인쇄술에 관한 이야기가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거론되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 정보는 주변 국가로 점차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 사마르칸트를 왔던 러시아 상인은 불가강 최상류에 위치해 있는 노보고로드 도시까지 동방의 상품을 실어 날랐다.

노보고로드는 중세 유럽 최대의 상업 조직이었던 한자동맹에서 그 지부를 세워놓고 있었다. 러시아 노보고로드를 통해 독일로 가져온 동방의 상품은 라인강을 따라 독일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구텐베르크가 처음 인쇄술에 도전한 것으로 추측되는 스트라스부르, {42행 성서} 성서 인쇄를 완성했던 그의 고향 마인츠는 모두 라인강변에 포진해 있는 도시로 수로교통의 요충지 도시였다. 조선 초기(태종~세종) 우리 금속활자 인쇄술이 유럽에 전해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열려 있었다. 세계 최초로 우리 취재팀이 제시하는 ‘활자로드’가 아닌가!

육상교통로(초원길, 비단길) 이외에 바닷길(해양 실크로드)을 통해 우리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유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 아랍의 상인들은 지중해를 거쳐 유럽의 최대 해상무역 도시였던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 집단 거주지역까지 건설했고, 한반도에도 대거 들어와 살며 세종의 즉위식에도 참여할 정도로 정치 사회적 위상이 높았다. 동서를 넘나드는 글로벌 시대가 아랍인들에 의해 최소한 15세기 초반에 이미 개막되어 있었다.

청주MBC와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는 장장 2년 간에 걸쳐 세계 최초로 ‘활자로드’ 대탐사를 단행했다. 우리는 비록 물증은 찾지 못했지만 우리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유럽으로 넘어갈 길은 분명히 활짝 열려 있었다. 중국의 목활자 인쇄술의 전파 가능성 보다 조선 초기 우리의 금속활자 인쇄술의 서양 전파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

#### 이젠 정부가 나서야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 때이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세우고 관련 학자를 모아 집중적인 연구를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보통신 그리고 교통의 발달로 갈수록 국경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이른바 글로벌시대가 열린다지만 그럴수록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시도와 이에 대한 우리의 분노 촉발이 바로 단적인 예가 아닌가?

청주MBC와 청주고인쇄박물관이 세계 최초로 명명했던 ‘활자로드’! 이제 ‘활자로드’가 우리 민족 모두의 것으로 승화되고 세계사에 기록되는 그 날을 학수고대해 본다. <끝>

<남윤성 · 청주MBC기획특집 CP팀

부장대우>

